

바둑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조세훈 9단>

<장슈 9단>



<구리 9단>

<공지에 9단>

세계바둑계는 '춘추전국시대'

<韓·中·日>

국내 바둑계의 오랜 맹주로 군림해 오던 절대자 이창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물론 과거의 위세에 비추어 그렇다는 말이고, '이창호 시대'를 혐의로 해석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바둑계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창호의 시대가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창호가 절대군주의 자리에서 하야한 지금 과연 우리는 포스트 이창호의 시대를 장악할 또 다른 군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현재 정황으로 볼 때 천하를 재통일할 패자의 출현은 적어도 상당 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에게 의해 바둑계의 타이틀이 독식되는, 그런 무지막직한 철권 통치의 시대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든 얘기가이다.

현 국내 바둑계 타이틀의 분포도를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창호가 거의 모든 타이틀을 석권한 가운데 두어 명의 기사들이 남은 몇 개의 타이틀을 나누어 가지며 이창호의 전관왕 등극을 간신히 저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

모든 프로기사들에게 출전권이 주어지는 국내 메이저 기전의 타이틀 수는 현재 9개. 랭킹 1위 이세돌 9단이 GS칼텍스배와 KBS배왕전,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우승해 3관왕으로 국내 기전 최다관왕에 올라 있다. 놀라운 것은 이세돌을 제외한 다관왕이 없다는 점이다.

이창호가 최근 전자랜드배 우승에 실패한 뒤 왕위전 하나만

을 지키고 있고 박영훈(기성), 조한승(천원)과 안조영(십단) 그리고 신예들인 윤준상(국수)과 강동윤(전자랜드)이 각각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춘추전국의 양상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훈이란 개인이 기성과 명인, 본인방을 옮겨주며 화려하게 대삼관을 올랐고, 네웨이펑과 마사오촌이 대륙을 질타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고만 고만한 강자들이 타이틀을 나누어 갖는 공존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마사타 게이이고(기성·왕좌)와 다카오 신지(명인·본인방)가 열도를 양분한 가운데 조지훈(십단), 고노린(천원)이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으며 한때 일본 1인자라고 불렸던 장슈가 작은 기성전이라 불리

는 기성(善聖)과 중소 타이틀인 NEC배, 아함동산배 타이틀을 보유하고 3관왕에 올라 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랭킹 1위 구리가 천원과 명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강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응씨배와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중국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장하오 역시 자국 기전에서는 무관이다.

중지에, 왕시, 처우전, 류싱 등 국제대회를 통해 얼굴이 익숙한 강자들이 남은 기전의 타이틀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바둑계의 춘추전국시대는 이제 세계 바둑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느낌이다.

절대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 일대 다수에서 다수 대다수의 혼전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세계 바둑계의 영토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창호 시대 접은 한국 이세돌 외 다관왕 없어

日·中도 장슈·구리 등 1인 전성시대 막 내려

'1 대 다수'에서 '다수 대 다수' 시대 대혼전

일본의 경우 아마사타 게이이고(기성·왕좌)와 다카오 신지(명인·본인방)가 열도를 양분한 가운데 조지훈(십단), 고노린(천원)이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으며 한때 일본 1인자라고 불렸던 장슈가 작은 기성전이라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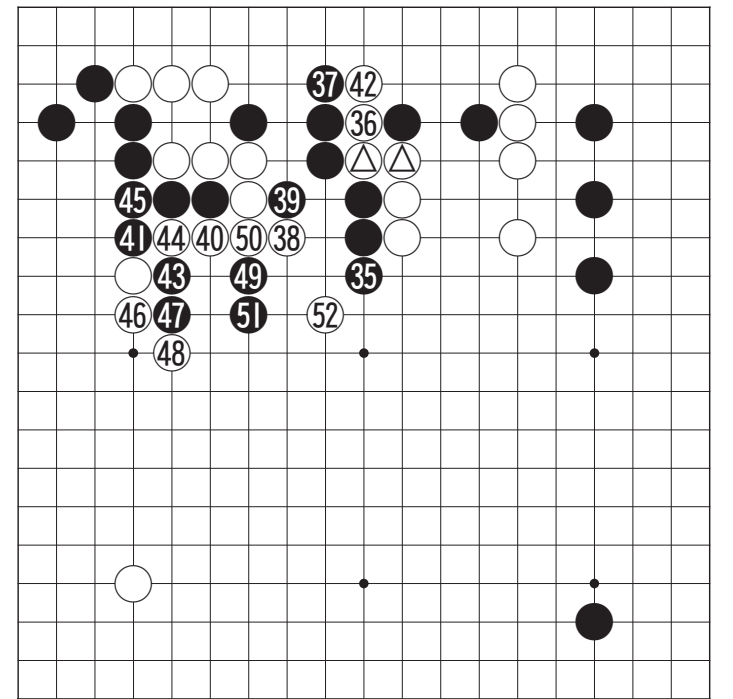
는 기성(善聖)과 중소 타이틀인 NEC배, 아함동산배 타이틀을 보유하고 3관왕에 올라 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랭킹 1위 구리가 천원과 명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강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응씨배와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중국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장하오 역시 자국 기전에서는 무관이다.

중지에, 왕시, 처우전, 류싱 등 국제대회를 통해 얼굴이 익숙한 강자들이 남은 기전의 타이틀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바둑계의 춘추전국시대는 이제 세계 바둑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느낌이다. 절대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 일대 다수에서 다수 대다수의 혼전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세계 바둑계의 영토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공격의 효과

白 김영수 5단 (호남 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백 △ 바둑이 뜻대로 술술 풀려가자 김영수 5단은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진다. 백 42가 급한 곳을 외면한 때에 남 빌림증으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몰고 3으로 지켜두는 것이 두렵고도 안전했다. 강하게 둔다면 1로는 'A'로 느는 수도 가능

되고 있다. 돌들이 부딪하자 접근전의 명수인 김영수 5단이 힘을 내고 있는 장면이다.

흑 35는 이 한수이며 백이 36으로 폭 끌려왔을 때 흑 37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 스들의 효과다. 이 효과로 백은 일단 오른쪽의 흑 두 점을 차단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백 40이 또 기분좋은 봉쇄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박광주 5단은 손따라서 41로 지켰으나 이 수는 작았다. 이 수로는 삼번 42의 자리에 넘어가고 싶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국수전, 최기훈 돌풍 주의보!

8강전서 박정상 물리쳐

최기훈 초단이 국수전에서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초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5기 국수전 본선 8강전에서 박정상 9단을 146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의 국수전에서 무명에 가까운 신예가 4강전에 진출한 것은 이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지난 2006년 8월 공식대국을 가진 이래 24승 17패의 통산전적을 기록할 정도로 비범한과는 거리가 먼 새내기 기사였기 때문. 그러나 그는 지난 18일 대회 16장에서 거함 조훈현 9단을 물리친 후 한국랭킹 6위인 박정상



9단까지 꺾고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른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무게를 실고 있다. 새내기 기사이다 보니 본선 대국도 국수전이 처음이며 삼단전 본선에도 올라 1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윤영기기자 penfoot@

"농심배 우승, 내게 맡겨라"

박영훈 한국팀 유일 2년연속 태극마크 달아

박영훈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한국대표 선발전 예선결승에서 김승준에게 불계승을 거두며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로써 지난 8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정상등극에 나선 정예멤버들이 박영훈, 홍민표, 조한승, 목진석, 박영훈 등 4명으로 꾸러졌다. 남은 한 장의 티켓은 대회 주최측이 추천하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물망에는 현재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이세돌과 '농심배 우승 청부업자' 이창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박영훈. 대표팀이 대륙 물갈이된 가운데 박영훈은 2년 연속 출

전하는 유일한 선수다. 그는 제4회 대회 때 첫번째 타자로 출전해 4연승을 거두며 우승을 견인했고, 제8회에서는 네번째 타자로 출전해 1승도 거두지 못한 한국에 꽃같은 4연승을 선물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모두가 농심신라면배 유경험자라는 점이 꼽힌다. 단체전인 데다 속기전이라는 대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경험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 농심배는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의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日 장슈 9단 요코다 꺾고 기성 타이틀 방어

일본의 장슈 9단이 최근 열린 제32기 기성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요코다 시게아키 9단을 302수 끝에 백 1 집 반으로 따돌리고 기성 타이틀을 방어했다. 지난 31기에서 요다 노리모토 9단을 꺾고 타이틀을 따냈던 장슈 9단은 첫 방어전에서 3-0, 완봉승을 거두고 기성전 2연패를 달성했다.

한 때 명인과 본인방을 양손에 쥐었던 장슈 9단은 다카오 신지 9단에 게 명인과 본인방을 모두 내주며 1인자 자리에서 내려온 바이다. 그러나 기성방에서 이어 명인전 리 그에서도 도전권을 따내 다카오 신지 9단과 명인전 7번 승부를 예약하는 등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특급상가 매매·임대.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lease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